

중국 랴오닝성,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 의장 수임 관련 보도자료 스크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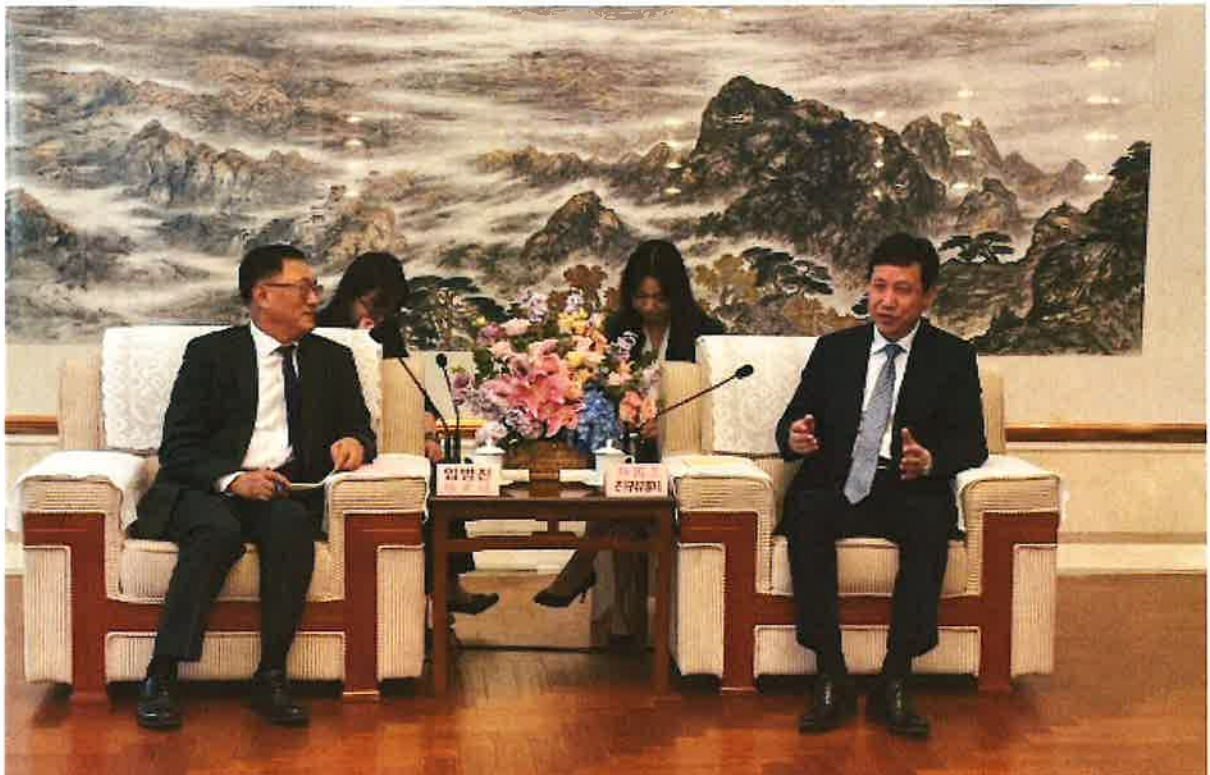
2023.06.19.(월)

번호	구분	매체명	제목	비고
1	신문	대경일보	중국 랴오닝성,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의장	
2	인터넷	연합뉴스	중국 랴오닝성,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의장단체 맡는다	
3	인터넷	에너지경제	중국 랴오닝성, 랴오닝성 단독 제15대 NEAR 의장 확정	
4	인터넷	월드코리아	중국 랴오닝성,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 의장 맡아	
5	인터넷	세계타임즈	중국 랴오닝성,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 의장단체 受任 신청	
6	인터넷	전국안전신문	중국 랴오닝성,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 의장단체 受任 신청	
7	통신사	서울뉴스통신	중국 랴오닝성,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의장단체 수임 신청	

중국 랴오닝성,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의장

✎ 김대호 기자 Ⓢ 승인 2023.06.18 15:25

10월 울산 총회에서 정식 선출



중국 랴오닝성이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 의장을 맡게 됐다. NEAR 사무국은 최근 랴오닝성이 단독으로 제15대 NEAR 의장 수임 신청서를 제출해 사실상 의장으로 확정됐다고 6월 15일 밝혔다.

NEAR 의장단체는 동북아 6개국 79개 회원 광역지자체 중에서 의장단체를 희망하는 광역지자체가 NEAR 사무국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총회에서 승인받아 취임하게 된다. 현재 NEAR 의장단체는 한국 울산시이며, 그간 NEAR 의장단체는 한국 5회(경북, 부산, 경기, 전남, 울산), 중국 4회(헤이룽장성, 산둥성, 닝샤후이족자치구, 후난성) 러시아 3회(하바롭스크변경주, 이르쿠츠크주, 사하공화국), 일본이 2회(도야마현, 효고현) 맡았다.

이번 의장단체 수임 신청서를 제출한 랴오닝성은 금년 10월 24-26일 울산에서 개최되는 총회에서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승인받아 정식 의장으로 선출될 예정이며, 향후 2년간 실무위와 총회를 개최하며, NEAR 사무국과 협력하여 동북아 지방정부간 다자교류와 협력을 이끌게 된다.

중국 랴오닝성은 이번 NEAR 의장단체 수임 신청과 함께 랴오닝성 정부가 중점 정책으로 추진 중인

디지털 경제 분과위 운영도 함께 신청하였는데 NEAR 내 디지털 분과위 신설 문제도 이번 울산 총회에서 승인받을 예정이다.

랴오닝성의 의장단체 수임과 디지털 분과위 신설 신청을 이끈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은 이번 랴오닝성의 의장단체 수임 신청과 관련 “최근 국제 및 동북아정세가 협력보다는 대립과 경쟁이 강화되는 정세속에서 중국 랴오닝성이 동북아 지역 지방정부 다자간 교류 협력 플랫폼인 NEAR의 의장단체를 신청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임병진 사무총장은 랴오닝성의 의장단체 수임 신청과 관련 지난 6월 중국 랴오닝성을 방문, 진귀웨이 부성장을 예방, 랴오닝성의 의장단체 수임 신청을 환영하고, 랴오닝성이 의장단체를 수임하는 향후 2년간 동북아지역 지방정부간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대호 기자 homigod@naver.com

중국 랴오닝성,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의장단체 맡는다

송고시간 | 2023-06-16 09:38



임병진 NEAR 사무총장, 진귀웨이 랴오닝성 부성장 면담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사무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은 최근 중국 랴오닝성이 단독으로 제15대 NEAR 의장 수임 신청서를 제출해 사실상 의장단체로 확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의장단체는 동북아 6개국 79개 회원 광역지자체 가운데 희망하는 지자체가 NEAR 사무국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총회에서 승인받으면 된다.

현재 NEAR 의장단체는 울산시다.

랴오닝성은 올해 10월 24일부터 사흘간 울산에서 열리는 총회에서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승인받아 정식 의장으로 선출될 예정이다.

향후 2년간 실무위와 총회를 개최하며 NEAR 사무국과 협력해 동북아 지방정부 간 다자교류와 협력을 이끌게 된다.

랴오닝성은 중점 정책으로 추진 중인 디지털 경제 분과위 운영도 함께 신청해 NEAR 내 신설 문 제도 울산 총회에서 승인받을 예정이다.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은 "최근 국제사회 및 동북아가 협력보다는 대립과 경쟁이 강화되는 정세 속에서 중국 랴오닝성이 동북아지역 지방정부 다자 간 교류 협력 플랫폼인 NEAR의 의장단체를 신청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NEAR는 1996년 한, 중, 일, 러 4개국 29개 광역지자체가 참가해 창설한 동북아 지방정부 간 다자교류 플랫폼으로 2005년 몽골과 북한이 회원으로 가입했다. 사무국은 경북 포항에 있다.

현재 동북아 6개국 79개 광역지자체가 가입한 국제기구로 성장했다.

haru@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3/06/16 09:38 송고

본 기사는 연합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Yonhapnews. All rights reserved.

중국 랴오닝성, 랴오닝성 단독 제15대 NEAR 의장 확정

정재우 jw5802@ekn.kr

최종 기사입력 2023-06-16 18:20:05



▲임병진(NEAR사무총장 진귀웨이 랴오닝성 부성장을 면담 하고 있다.(제공-NEAR 사무국)

중국 랴오닝성이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 의장을 맡게 됐다. NEAR 사무국은 최근 랴오닝성이 단독으로 제15대 NEAR 의장 수임 신청서를 제출해 사실상 의장으로 확정됐다고 15일 밝혔다.

NEAR 의장단체는 동북아 6개국 79개 회원 광역지자체 중에서 의장단체를 희망 하는 광역지자체가 NEAR 사무국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총회에서 승인받아 취임하게 된다.

현재 NEAR 의장단체는 한국 울산시이며, 그간 NEAR 의장단체는 한국 5회(경북, 부산, 경기, 전남, 울산), 중국 4회(헤이룽장성, 산둥성, 닝샤후이족자치구, 후난성) 러시아 3회(하바롭스크변경주, 이르쿠츠크주, 사하공화국), 일본이 2회(도야마현, 효고현) 맡았다.

이번 의장단체 수임 신청서를 제출한 랴오닝성은 금년 10.24-26간 울산에서 개최되는 총회에서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승인받아 정식 의장으로 선출될 예정이며, 향후 2년간 실무위와 총회를 개최하며, NEAR 사무국과 협력하여 동북아 지방정부간 다자교류와 협력을 이끌게 된다.

중국 랴오닝성은 이번 NEAR 의장단체 수임 신청과 함께 랴오닝성 정부가 중점 정책으로 추진 중인 디지털 경제 분과위 운영도 함께 신청했는데 NEAR 내 디지털 분과위 신설 문제도 이번 울산 총회에서 승인을 예정이다.

랴오닝성의 의장단체 수임과 디지털 분과위 신설 신청을 이끈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은 이번 랴오닝성의 의장단체 수임 신청과 관련 "최근 국제 및 동북아정세가 협력보다는 대립과 경쟁이 강화되는 추세속에서 중국 랴오닝성이 동북아 지역 지방정부 다자간 교류 협력 플랫폼인 NEAR의 의장단체를 신청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임병진 사무총장은 랴오닝성의 의장단체 수임 신청과 관련 지난 6.6 중국 랴오닝성을 방문, 진귀웨이 부성장을 예방, 랴오닝성의 의장단체 수임 신청을 환영하고, 랴오닝성이 의장단체를 수임하는 향후 2년간 동북아지역 지방정부간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진귀웨이 부성장은 NEAR는 그간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한 공동발전과 평화를 목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하고, 차기 의장단체로서 NEAR와 라오닝성, 동북아지역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공동발전을 위해 NEAR 사무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NEAR는 지난 1996년 한·중·일·러 4개국 29개 광역지자체가 참가해 창설한 동북아지방정부간 다자교류 플랫폼으로 2005년 몽골과 북한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현재는 동북아 6개국 79개 광역지자체가 가입하는 국제기구로 성장했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

정재우 (jjw5802@ekn.kr)

< 저작권자 © 에너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한민국 경제의 힘, 에너지경 >



취소

[HOME \(/\)](#) > [뉴스 \(/news/articleList.html?sc_section_code=S1N2\)](#) > [중국 \(/news/articleList.html?sc_sub_section_code=S2N54\)](#)

중국 랴오닝성,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 의장 맡아

최병천 기자 | 승인 2023.06.15 15:07

임병진 사무처장, 랴오닝성 방문… 6개국 79개 지방정부간 협력기구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최병천 기자

중국 랴오닝성이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 의장을 맡게 됐다. NEAR 사무국은 최근 랴오닝성이 단독으로 제15대 NEAR 의장 수임 신청서를 제출해 사실상 의장으로 확정됐다고 6월 15일 밝혔다. NEAR은 동북아 6개국 79개 회원 광역지자체로 구성돼 있다.

현재 NEAR 의장은 한국 울산시다. 한국은 경북, 부산, 경기, 전남, 울산이 각기 의장을 맡았다. 중국은 헤이룽장성, 산둥성, 닝샤후이족자치구, 후난성이 맡았으며, 러시아는 하바롭스크변경주, 이르쿠츠크주, 사하공화국, 일본은 도야마현, 효고현이 맡은 바 있다.

랴오닝성은 오는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울산에서 개최되는 총회에서 정식 의장으로 선출되며, 2년간 NEAR 사무국과 협력하여 동북아 지방정부 간 다자교류와 협력을 이끌게 된다.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은 “최근 국제정세와 동북아정세가 협력보다는 대립과 경쟁이 강화되는 가운데 중국 랴오닝성이 동북아지역 지방정부의 다자간 교류 협력 플랫폼인 NEAR 의장단체를 신청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며, “랴오닝성이 NEAR 내 디지털 분과위 신설도 제안해 오는 울산 총회에서 승인받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임병진 사무총장은 지난 6월 6일 중국 랴오닝성을 방문해 진궈웨이 부성장을 예방하고 랴오닝성이 의장을 맡게 되는 2년 동안 동북아지역 지방정부 간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요청했다.

NEAR은 1996년 한중일러 4개국 29개 광역지자체가 참가해 창설한 동북아지방 정부간 다자교류 플랫폼으로, 2005년 몽골과 북한이 회원으로 들어가 현재는 동북아 6개국 79개 광역지자체가 가입해 있다.



임병진 NEAR 사무총장(왼쪽)이 지난 6월 6일 랴오닝성을 방문해 랴오닝성 진귀웨이 부성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NEAR 사무국]

저작권자 © 월드코리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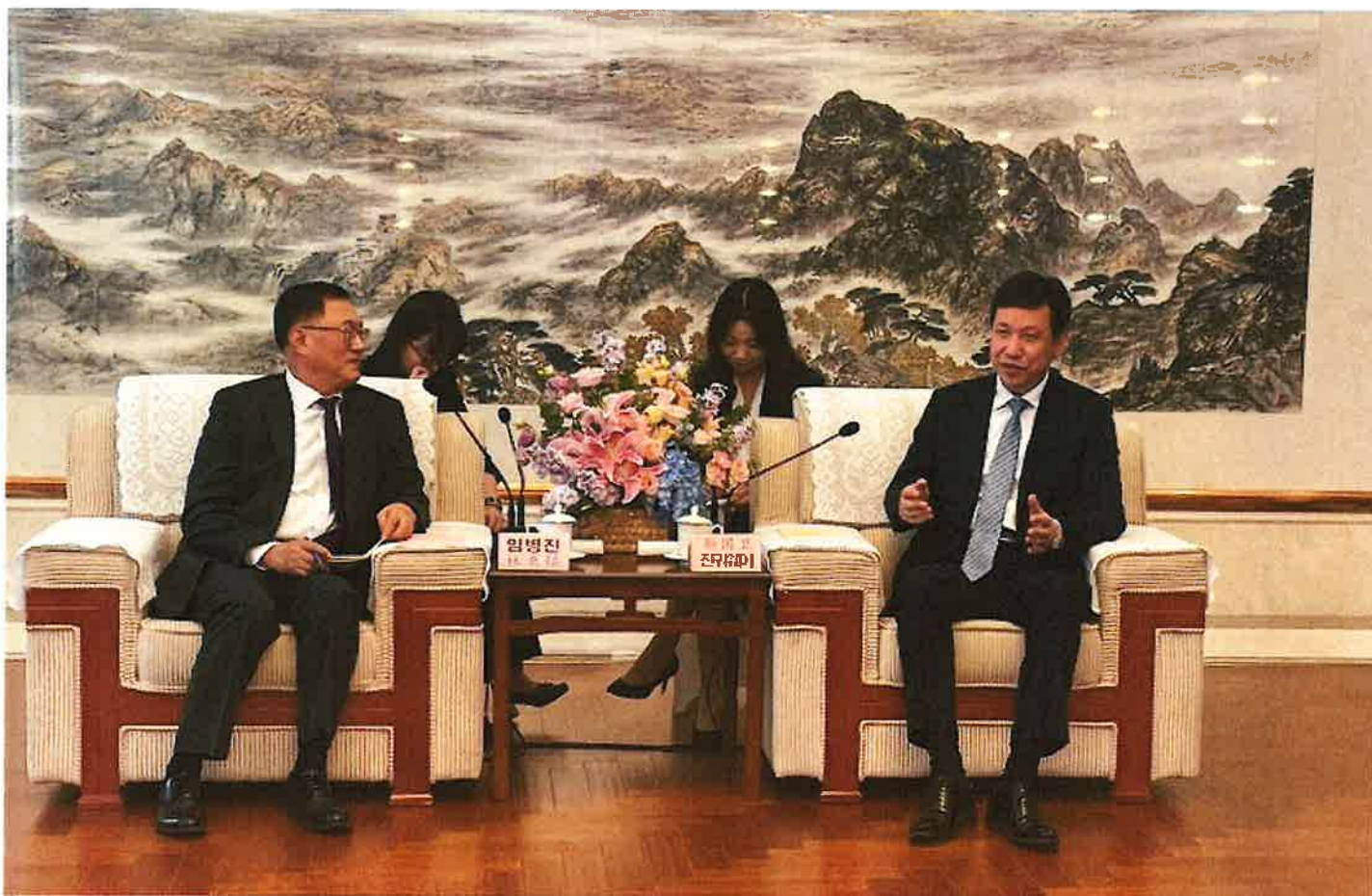
최병천 기자

인쇄

HOME > 세계로컬핫뉴스 > 경북

중국 랴오닝성,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 의장단체 受任 신청

한성국  / 기사작성 : 2023-06-16 12:22:34



[경북 세계타임즈=한성국 기자] 중국 랴오닝성이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 의장을 맡게 됐다. NEAR 사무국은 최근 랴오닝성이 단독으로 제15대 NEAR 의장 수임 신청서를 제출해 사실상 의장으로 확정됐다고 6월 15일 밝혔다.

NEAR 의장단체는 동북아 6개국 79개 회원 광역지자체 중에서 의장단체를 희망하는 광역지자체가 NEAR 사무국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총회에서 승인받아 취임하게 된다. 현재 NEAR 의장단체는 한국 울산시이며, 그간 NEAR 의장단체는 한국 5회(경북, 부산, 경기, 전남, 울산),

중국 4회(헤이룽장성, 산둥성, 닝샤후이족자치구, 후난성) 러시아 3회(하바롭스크변경주, 이르쿠츠크주, 사하공화국), 일본이 2회(도야마현, 효고현) 맡았다.

이번 의장단체 수임 신청서를 제출한 랴오닝성은 금년 10.24-26간 울산에서 개최되는 총회에서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승인받아 정식 의장으로 선출될 예정이며, 향후 2년간 실무위와 총회를 개최하며, NEAR 사무국과 협력하여 동북아 지방정부간 다자교류와 협력을 이끌게 된다.

중국 랴오닝성은 이번 NEAR 의장단체 수임 신청과 함께 랴오닝성 정부가 중점 정책으로 추진 중인 디지털 경제 분과위 운영도 함께 신청하였는데 NEAR 내 디지털 분과위 신설 문제도 이번 울산 총회에서 승인받을 예정이다.

랴오닝성의 의장단체 수임과 디지털 분과위 신설 신청을 이끈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은 이번 랴오닝성의 의장단체 수임 신청과 관련 “최근 국제 및 동북아정세가 협력보다는 대립과 경쟁이 강화되는 정세속에서 중국 랴오닝성이 동북아 지역 지방정부 다자간 교류 협력 플랫폼인 NEAR의 의장단체를 신청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임병진 사무총장은 랴오닝성의 의장단체 수임 신청과 관련 지난 6.6 중국 랴오닝성을 방문, 진궈웨이 부성장을 예방, 랴오닝성의 의장단체 수임 신청을 환영하고, 랴오닝성이 의장단체를 수임하는 향후 2년간 동북아지역 지방정부간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진궈웨이 부성장은 NEAR는 그간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한 공동발전과 평화를 목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하고, 차기 의장단체로서 NEAR와 랴오닝성, 동북아지역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공동발전을 위해 NEAR 사무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화답하였다.

NEAR는 지난 1996년 한,중,일,러 4개국 29개 광역지자체가 참가해 창설한 동북아지방정부간 다자교류 플랫폼으로 2005년 몽골과 북한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현재는 동북아 6개국 79개 광역지자체가 가입하는 국제기구로 성장하였다.

중국 랴오닝성,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 의장단체 受任 신청

기사입력시간 : 2023/06/16 [20:52:00]

편집부



▲ 임병진NEAR사무총장-진귀웨이_랴오닝성_부성장_면담 ©

중국 랴오닝성이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 의장을 맡게 됐다. NEAR 사무국은 최근 랴오닝성이 단독으로 제15대 NEAR 의장 수임 신청서를 제출해 사실상 의장으로 확정됐다고 6월 15일 밝혔다.

NEAR 의장단체는 동북아 6개국 79개 회원 광역지자체 중에서 의장단체를 희망하는 광역지자체가 NEAR 사무국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총회에서 승인받아 취임하게 된다. 현재 NEAR 의장단체는 한국 울산시이며, 그간 NEAR 의장단체는 한국 5회(경북, 부산, 경기, 전남, 울산), 중국 4회(헤이룽장성, 산둥성, 닝샤후이족자치구, 후난성) 러시아 3회(하바롭스크변경주, 이르쿠츠크주, 사하공화국), 일본이 2회(도야마현, 효고현) 맡았다.

이번 의장단체 수임 신청서를 제출한 랴오닝성은 금년 10.24-26간 울산에서 개최되는 총회에서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승인받아 정식 의장으로 선출될 예정이며, 향후 2년간 실무위와 총회를 개최하며, NEAR 사무국과 협력하여 동북아 지방정부간 다자교류와 협력을 이끌게 된다.

중국 랴오닝성은 이번 NEAR 의장단체 수임 신청과 함께 랴오닝성 정부가 중점 정책으로 추진 중인 디지털 경제 분과위 운영도 함께 신청하였는데 NEAR 내 디지털 분과위 신설 문제도 이번 울산 총회에서

승인받을 예정이다.

랴오닝성의 의장단체 수임과 디지털 분과위 신설 신청을 이끈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은 이번 랴오닝성의 의장단체 수임 신청과 관련 “최근 국제 및 동북아정세가 협력보다는 대립과 경쟁이 강화되는 정세속에서 중국 랴오닝성이 동북아 지역 지방정부 다자간 교류 협력 플랫폼인 NEAR의 의장단체를 신청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임병진 사무총장은 랴오닝성의 의장단체 수임 신청과 관련 지난 6.6 중국 랴오닝성을 방문, 진궈웨이 부성장을 예방, 랴오닝성의 의장단체 수임 신청을 환영하고, 랴오닝성이 의장단체를 수임하는 향후 2년간 동북아지역 지방정부간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진궈웨이 부성장은 NEAR는 그간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한 공동발전과 평화를 목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하고, 차기 의장단체로서 NEAR와 랴오닝성, 동북아지역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공동발전을 위해 NEAR 사무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화답하였다.

NEAR는 지난 1996년 한,중,일,러 4개국 29개 광역지자체가 참가해 창설한 동북아지방정부간 다자교류 플랫폼으로 2005년 몽골과 북한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현재는 동북아 6개국 79개 광역지자체가 가입하는 국제기구로 성장하였다.

중국 랴오닝성,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의장단체 수임 신청

✎ 박영기 Ⓞ 승인 2023.06.16 09:21

현재 NEAR 의장단체는 울산시



임병진 사무총장은 랴오닝성의 의장단체 수임 신청과 관련 지난 6일 중국 랴오닝성을 방문, 진귀웨이 부성장을 예방했다.

【서울 = 서울뉴스통신】 박영기 기자 =중국 랴오닝성이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 의장을 맡게 됐다. NEAR 사무국은 최근 랴오닝성이 단독으로 제15대 NEAR 의장 수임 신청서를 제출해 사실상 의장으로 확정됐다고 15일 밝혔다.

NEAR 의장단체는 동북아 6개국 79개 회원 광역지자체 중에서 의장단체를 희망하는 광역지자체가 NEAR 사무국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총회에서 승인받아 취임하게 된다.

현재 NEAR 의장단체는 한국 울산시이며, 그간 NEAR 의장단체는 한국 5회(경북, 부산, 경기, 전남, 울산), 중국 4회(헤이룽장성, 산둥성, 닝샤후이족자치구, 후난성) 러시아 3회(하바롭스크변경주, 이르쿠츠크주, 사하공화국), 일본이 2회(도야마현, 효고현) 맡았다.

이번 의장단체 수임 신청서를 제출한 랴오닝성은 오는 10월 24일~26일 간 울산에서 개최되는 총회에서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승인받아 정식 의장으로 선출될 예정이며, 향후 2년간 실무위와 총회를 개최하며, NEAR 사무국과 협력하여 동북아 지방정부간 다자교류와 협력을 이끌게 된다.

중국 랴오닝성은 이번 NEAR 의장단체 수임 신청과 함께 랴오닝성 정부가 중점 정책으로 추진 중인 디지털 경제 분과위 운영도 함께 신청하였는데 NEAR 내 디지털 분과위 신설 문제도 이번 울산 총회에서 승인을 예정이다.

랴오닝성의 의장단체 수임과 디지털 분과위 신설 신청을 이끈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은 이번 랴오닝성의 의장단체 수임 신청과 관련 "최근 국제 및 동북아정세가 협력보다는 대립과 경쟁이 강화되는 정세속에서 중국 랴오닝성이 동북아 지역 지방정부 다자간 교류 협력 플랫폼인 NEAR의 의장단체를 신청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임병진 사무총장은 랴오닝성의 의장단체 수임 신청과 관련 지난 6일 중국 랴오닝성을 방문, 진궈웨이 부성장을 예방, "랴오닝성의 의장단체 수임 신청을 환영하고, 랴오닝성이 의장단체를 수임하는 향후 2년간 동북아지역 지방정부간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진궈웨이 부성장은 "NEAR는 그간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한 공동발전과 평화를 목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하고, "차기 의장단체로서 NEAR와 랴오닝성, 동북아지역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공동발전을 위해 NEAR 사무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화답하였다.

NEAR는 지난 1996년 한, 중, 일, 러 4개국 29개 광역지자체가 참가해 창설한 동북아지방정부간 다자교류 플랫폼으로 2005년 몽골과 북한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현재는 동북아 6개국 79개 광역지자체가 가입하는 국제기구로 성장하였다.



박영기 pakryk2002@naver.com